

되고 있는데天井은 없고露出되어 있다. 이렇게天井이 없는前室은雲岡에서도 볼 수 있으며雲岡第七、八兩洞은前室이 모두天井이 없으며 이것은元來兩洞을連結해서前室을 덮은木造지붕이 있었다고 믿어지고 있다. (雲岡第四卷 本文 P.三八 參照)

오늘날石窟庵補修에 있어서이前室을 어떻게 덮는가가 큰問題거리로 되어 있는데여기는元來는木造지붕이 세워져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五

總括적으로말해우리石窟庵은中國의石窟寺院에서아이다이를얻으면서中國石窟을直接的인範本으로삼지않고中國式인繁褥한圖像을取하지않았으며簡潔하면서統一된플랜으로莊嚴한石窟寺院을만들어내고있다.

彫刻自體도長安寶慶寺石像樣式에立脚한것이分明하면서技術적으로는그것을 훨씬凌駕하고있으며寶慶寺石像이도리어石窟庵彫刻의墮落形式이라고보이게끔하고있다. (一九六一、八、六)

石窟庵에서 搬出된 塔像

黃 壽 永

石佛寺(石窟庵)의窟院은新羅의金冠이나高麗의磁器와같이地下에埋沒되었다가今世紀에들어서日人에의하여發見된것은아닙니다.

비록創建以來千餘年을지남에類落이尤甚하였고마침내天井一部까지落下되어窟內에는土砂가쌓여있었다하더라도뚜렷한伽藍으로서法燈을이어왔고僧侶와香徒에의한重修의努力은前世紀末까지도꾸준히 계속하여왔던것입니다. 그러므로石窟諸像의完存을奇蹟이었다고말하기에앞서서그뒤에숨은歷代의功德을잊어서는아니될것입니다. 이같은事實은昨夏筆者가石窟庵에滯留하면서山下部落의古老들을

찾아서 더욱實感한바이지만石窟이國民의새로운注視를받게된것은日帝初의大規模改修以後이었다는것도否認할수는없을것입니다. 다만今日에있어애석한것은日帝에의한解體修理에앞서서自體의正確한現狀調査와記錄이이루어지지못하였고또工事に따라서發見되는重要한學的資料에對한收拾의努力이全無하였다는것입니다. 이것은日帝에의한初期의修理事業(例如佛國寺益山彌勒寺石塔等)에서共通되는遺憾事였다고指摘할수있는바인데이같은用意의不足은修理그自體의完壁을期하기위하여뿐만아니라그以後에있어서의保存과研究를위하여서도重大한障害가되고야말았다는것입니다. 오늘石窟의改修를다시論議하게됨에이러이같은點이다시금느껴지는바입니다.

이같은事實은且置하더라도오늘의現狀이石窟의原形그대로그아니라는點을이곳에서強調하여두고싶습니다. 비록本尊과周壁및前室諸像一部の配置順이옛과같다고하더라도石窟의構築手法이나外觀에는많은任意的變形과倭色の加味가있었다는것입니다. 佛國寺의石築이나石窟의前室과入口墻垣等에서의變貌를日人自身도指摘하여「今日새로운侮辱을修理라는이름밑에받았다」고말한바있습니다. 그러므로오늘우리손에의한새로운重修를논함에두고日帝에의한變貌를原形으로錯覺하는것과같은疏忽한判定이다시되풀이되어서는아니될것입니다.

石窟庵은말할것도없이하나의窟院으로서의建造物이며그自體는當代信仰과美術文化를內容으로삼은物心兩面の凝結體입니다. 따라서그가지니는宗敎的意義와造型美는이와같은觀點에서追究되어야할것입니다. 오늘우리가보는이石窟의現狀과僅少의資料만을根據삼아서라도그精神的造形的인原態에對한復元的研究가우리손에의한改修와不可分の關聯을갖고推進되어야할것입니다. 筆者는窟內奉安의像設로서傳來하던作品으로서오늘볼수없게된塔像에對하여記錄을더듬어보겠습니다. 그들이모두今世紀初에日帝에의하여日本으로被奪되었다는嚴然한事實을指摘하여두고자하는것입니다.

먼저 石塔에 관한 것부터 말하여 보겠습니다. 日帝修理 當時 發見되어 慶州博物館에 陳列되어 있는 破塔一基(佛國寺と石窟庵)(圖版参照)는 各方面에 塔像이 彫刻되어 있습니다. 千佛千塔을 偶意하고 있는 이 小塔의 正確한 發見地點에 對하여 日帝는 「窟內에 安置되었던 것인지 또는 上部窟室內에 있던 것인지 分明치 않다」고 解說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筆者가 말하려는 것은 出土되었다는 이 破塔이 아니라 뚜렷이 室內에 安置되어 아마도 原形을 保有하고 있었던 石塔一座입니다.

이미 上學한 破塔一個로서만도 塔奉安의 事實이 짐작되는 바인데 또한 石塔이 原位置로 推定되는 地點에 있었다면 石窟은 오늘 보는 바와 같이 佛像만의 奉安을 目的삼은 것이 아니라 塔像 兩者의 併置를 위한 經營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印度를 비롯한 東洋佛敎 諸國의 窟院에서 보는 바와 같은 塔像安置의 方式은 우리 新羅 吐舍山上의 이른바 石窟寺院의 終着驛에 이르러서도 이와 같이 禮拜對象으로서의 兩者를 兼有하였다는 뚜렷한 事實입니다. 그리하여 比魯 時代에 따라 信仰內容이 變遷되었기 때문 印度에서 보는 바와는 달리 우리 石窟에서는 塔이 工藝의 인 것으로 縮少되었더라도 佛像과 同時에 塔을 安置하였다는 點에서 우리 石窟이 지니고 있던—— 지금은 볼 수 없게 된—— 다른 面貌와 깊은 意義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塔은 本尊 直後인 十一面觀音立像앞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바 그에 對하여 日人 諸鹿央雄(日帝時慶州博物館長)의 記錄全文은 다음과 같습니다. 「此外에 九面觀音앞에 現存하는 臺石上에 佛舍利가 奉納되었다고 口傳된 小形의 훌륭한 大理石製의 塔이 있었던 바 지난 明治四十一年春 尊貴한 某大官의 巡後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어 버린 것은 지금 생각하여 애석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慶州의 新羅時代遺跡에 對하여) 講述寫本)

이에 對하여 日人 柳宗悅氏는 「目擊者의 懷述에 의한다」고 하면서 「十一面觀音앞에 작은 優秀한 五重塔이 一個 安置되고 있었다」고 記錄하고 있습니다. (朝鮮과 藝術) 諸鹿이 「某大官」이라고 함에 對하여 柳氏는 「이것(塔)은 後에 會福統監이 持行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眞僞不明」이

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搬出年에 對하여 諸鹿은 一九〇八年春이라 하였는데 某大官이 會福를 가르켰다면 그의 所謂 「初度巡視」는 一九〇九年秋의 일입니다. 日人들은 이 事實을 「慶州의 古蹟이 大官을 맞이한 처음」이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大官이 다녀간 후 이 石塔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외에 이 塔에 對한 初期의 記錄으로서는 奧田梯「新羅舊都 慶州誌」에도 「五重塔으로서 會福統監時代에 持去……」라 하였는데 이와같이 이 石塔의 窟內傳來와 搬出의 事實은 明白하다고 하겠습니다. 十一面 觀音앞에 現存하는 方形石 一個가 이 石塔이 놓이었던 臺石임은 틀림 없을 것이며 窟內 最奧處인 이 地點이 혹시 原位置로 推定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筆者가 오래 前부터 注目하고 있는 또 하나의 方形臺石 一個가 窟外인 前室의 八部神像(尙左)下에 現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上記한 窟內觀音앞의 石塔臺石과 거의 同形同大로서 그 原位置는 窟內로 推定되는 것인데 이것이 또한 石塔臺石이라고 한다면 그 石塔으로서 앞서 말한 窟內發掘의 千佛塔이 먼저 比定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筆者는 窟內外에 殘存하는 方臺石 二個에서 窟內에 雙基의 石塔配置를 推定하여 보려고 하였는데 이것은 同代經營인 佛國寺 雙塔 또는 이보다 앞서서 石佛寺 東方에 建立된 感恩寺 또는 獐項里寺址의 三層 또는 五層의 雙塔配置方式과 도 서로 關聯됨이 없지 않을 것이며 그 樣式에 있어서 佛國寺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었을까 앞으로 配置와 더불어 調査를 期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窟內에 奉安되었던 石佛像 二軀에 對하여서는 石塔보다 더욱 많은 記錄을 찾을 수 있습니다. 窟內 周壁像 上部에 만들어진 窟室 十個에는 各一軀씩 小石像이 安置되어 있는 바 現在 入口의 八角柱 上部左右의 二龕(第一과 第十龕)만이 空虛하니 이것은 石像 二軀의 對日搬出의 事實과 正確히 符合됩니다. 이 石像의 搬出年代는 韓末로서 日人에 의하여 石塔搬出과 前後하였는데 佛國寺를 經由하여 運搬되었다는 口傳이 現地에 남아 있습니다. 이 石像은 菩薩坐像으로 推定될 뿐인데 그것이 日本에 搬出된 것만은 確實합니다. 慶州 最初의 日人官吏로서 大韓帝國

政府에 招聘되어 「主席書記」로서 赴任하였던 木村靜雄氏의 回顧錄에도 明記되어 있습니다.

「願컨대 新羅文化的 保存上에 多幸 있기를 祈願할 뿐이다. 그리고 나의 赴任前後에 盜兒들에 의하여 換金되어 內地(日本)로 搬出되어 있는 石窟佛像 二軀와 多寶塔 獅子一軀와 其他의 礎龍等 貴金物의 返還을 得하여 保存上의 完全을 얻는 것은 나의 終生의 所望이다. (朝鮮 に考朽して) 一九二四年刊」

이와같은 搬出紛失 또는 賣買의 記錄은 數種文獻에서 볼 수 있는 바인데 이 石像 兩軀에 對하여 日帝는 石窟修理當時에 窟內에서 出土된事實이 없음을 말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言及은 없읍니다. 筆者는 日帝에 의한 第一次修理에 앞서서 佛國寺와 石窟庵으로 부터 이와같이 運搬이 容易한 塔像等이 日本으로 搬出되었고 그들이 日本에 現存하고 있다고 믿는 바입니다. 이같은 塔像은 비록 小形의 作品들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至寶인 石窟의 完全復舊와 그가 속깊이 지니고 있는 意義와 美에 對한 우리의 自覺과 研究를 위하여서는 더욱 注目되어야 하며 現品은 原位置에 返還되어야 할 것입니다. (一九六一·八·一)

石窟庵에서 發見된 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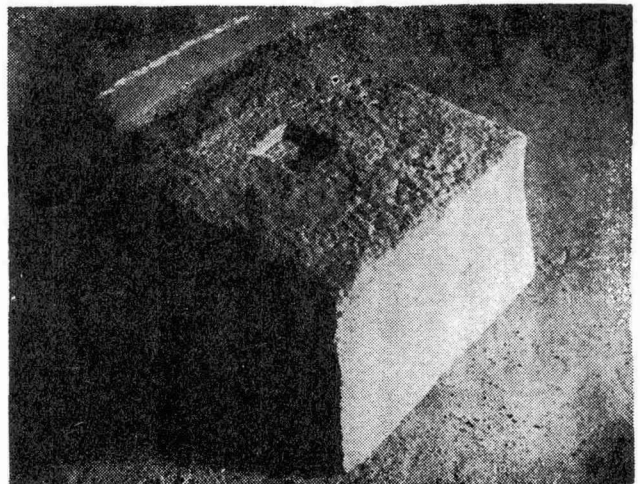
秦 弘 燮

一九二三年 石窟庵 石窟의 解體補修工事が 始作되어 本尊을 除外한 全壁面과 天井이 解體되고 窟內外의 地面을 整理할 때 地表上에서 많은 遺物이 發見되었다. 그 中의 몇點은 이미 널리 紹介된 바 있는데 여러가지 事實을 暗示하여주는 遺物이 紹介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 中에는 지금까지 所在가 不明한 것도 있어서 全部를 紹介하지는 못하겠으나 可能한 限 出土遺物을 이에 紹介하고자 한다.

甲、石造物類

一、石彫小寶塔

現 總高 二·一尺
塔身幅 〇·五五尺
——〇·五七尺
塔身을 四段으로 區分하고 各段에 六基석의 塔과 塔 사이에 上下로 佛坐像이 彫刻되었다. 밑은 破損되어 알 수 없고 屋蓋는 四注式이며 받침이 三段 있다. 그 위에는 露盤, 覆鉢과 六輪이 남아 있고 以上은 破損되었다.



石窟內石塔臺石(十一面觀音前)
(方形舍利孔이 보인다. 1961. 8. 12 調査)

二、金剛力士像 頭部 一、左手 一、左腕 一、

頭部 現高 一·八五尺、手 現長 〇·六五尺、腕 現長 一·五七尺
以上四點은 朝鮮總督府 發行「佛國寺と石窟庵」에 收錄되어 있다.

乙、鐵造物類

一、正 八個 圖面 A

모두 四角正으로 길이는 그다지 길지 않다. 어떤 것은 길이가 짧아서 손에 쥘 수 없을 정도이다. 아마 자루에 매서 彫刻用으로 使用하였으리라 고 생각된다.

二、은장 四個 圖版 C

石材와 石材를 連結하기 爲하여 使用되었던 것이다. 所謂「주먹은장」으로서 原來의 길이는 一尺가까운 기장이었으리라 고 생각되나 모두 切斷되었을 뿐 아니라 각각 別個의 것이다. 一九二三年 修理時 이것을 본